Daishin 증권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KOSPI 4,000 선 지지력 확인, 든든한 반도체

- KOSPI 4,000선 지지력 확인
- 마이크론 실적발표 기대감. 든든한 반도체
- 특징업종: 엔터테인먼트, 호텔/레저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 News] 삼성바이오로직스: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0만원 유지
- 생물보안법 연내 확정, 1월 CDMO 기업 포함 여부 확인 예정
- 미국 관련 투자 시나리오 가정시, 수주 경쟁력 개선 가능

이희영. heeyoung.lee@daishin.com

[Industry Report] 글로벌 IP 패권 경쟁 속 한국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기회

- 글로벌 IP 비즈니스는 미국, 일본 중심의 과독점 시장
- 한국 콘텐츠 IP 기업들은 해외 진출, OSMU 전략으로 고성장세
- Top Pick: 더핑크퐁컴퍼니. 해외매출 확대, 독보적 글로벌 IP 매력 보유

김아영. ahyoung.kim0@daishin.com

[Company Report] 더핑크퐁컴퍼니: 핵심 IP 성숙기 이후, 새로운 성장 사이클 진입

-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핑크퐁을 중심으로 다양한 IP 보유
- 검증된 글로벌 IP와 높은 수익화 구조로 고성장세
- 2026년 예상 당기순이익 기준 PER 15.9배에 거래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4Q25 Preview] 미스토홀딩스: 자사주 전량 소각으로 기업가치 제고

- 보유 자사주 11.7% 전량 소각 발표
- 글로벌 사업을 통해 창출하는 풍부한 현금흐름이 주주가치 제고의 재원
- 주주가치 제고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근거로 작용할 듯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4Q25 Preview] 삼성전자: 푸른 피의 힘

- 이익 체력 강화.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10조원으로 상향.
- Valuation의 Upside 여력 존재. 구조적 변화 노력에 주목.
- 목표주가 140,000원과 매수의견 유지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KOSPI 4,000선 지지력 확인, 든든한 반도체

- KOSPI 4,000선 지지력 확인
- 마이크론 실적발표 기대감. 든든한 반도체
- 특징업종: 엔터테인먼트, 호텔/레저

KOSPI 4,000선 지지력 확인

– 전일 밤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와 소매판매 부진은 금리인하 정당성을 높이는 한편 경기 불확실성을 자극하며 미국증시는 약보합 마감. 다만, 정부 셧다운의 영향으로 지표에 잡음이 섞인 만큼, 시장은 이를 조심스럽게 해석.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에는 큰 변동이 없었음

– 달러-원 환율이 1480원대로 근접,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KOSPI 상승폭 축소하는 듯 보였으나, 14시 30분을 기점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전기전자, 제조 업종 중심으로 유입되며 4056.41pt로 마감

– 코스닥은 반도체 장비/소부장 업종이 반도체 대형주 매수세 흐름을 타고 강세를 보였으나, 바이오 로봇 등 대형주 부진에 하락

마이크론 실적발표 기대감. 든든한 반도체

– KOSPI 상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 두 종목이 올린 지수와 코스피 상승폭 거의 비슷. 반도체 대표주 상승이 없다면 KOSPI는 약세

– 오는 18일 새벽 美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예정. EPS 전망치는 3.93달러로 전년 동기(1.79달러)보다 120% 급증. 매출은 45% 이상 증가한 128억2,000만 달러로 컨센서스 형성

– 골드만삭스에서 26년 D램 가격 상승률 YoY +80%로 상향.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루빈에 HBM4 의미있는 비중 확보 보도되는 등 호재가 만연

– 마이크론 실적 결과가 AI 산업 수익성, 버블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는 완화시켜줄 수 있을 전망

반도체: 삼성전자(+5.0%), SK하이닉스(+4.0%), 이오테크닉스(+6.3%)

특징업종: 엔터테인먼트, 호텔/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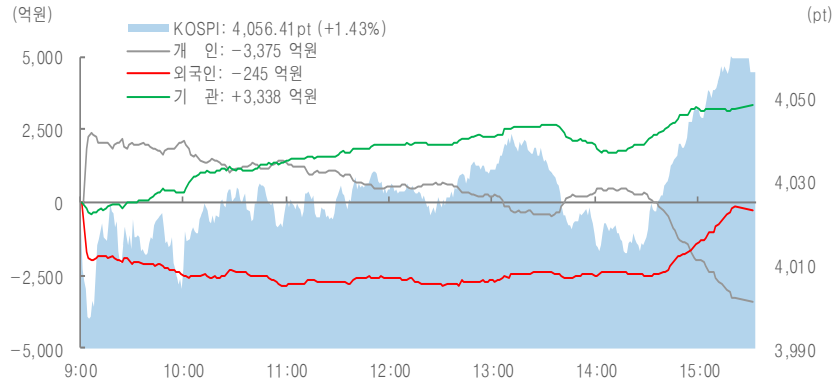
– **엔터테인먼트**: 한국 4대 기획사, 내년 1월 중국 내 K팝 콘서트 관련 문의 확인

에스엠(+5.8%), 하이브(+2.7%), JYP Ent.(+4.1%), 와이지엔터테인먼트(+1.7%)

– **호텔/레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민간 기업 운영에 대해 특혜 소지 지적. 민간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부각

롯데관광개발(-6.8%), 파라다이스(-7.0%), GS피앤엘(-2.3%)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ssue & News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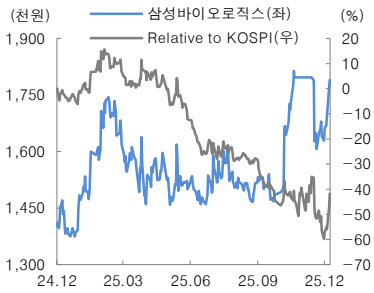
이희영

heeyoung.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200,000 유지
현재주가 (25.12.16)	1,790,000 제약업종

KOSPI	3999.13
시가총액	82,86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2.49%
자본금(보통주)	11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790,000원 / 934,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22억원
외국인지분율	12.69%
주요주주	삼성물산 외 4 인 74.32% 국민연금공단 6.6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6.6	72.8	76.4	79.2
상대수익률	47.1	49.0	29.9	11.5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0만원 유지
- 생물보안법 연내 확정, 1월 CDMO 기업 포함 여부 확인 예정
- 미국 관련 투자 시나리오 가정시, 수주 경쟁력 개선 가능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0만원 유지, 최선호주 유지

동사는 인적 분할 이후 수급 재편에 따른 부담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 26년에는 4공장 풀가동과 5공장 램프업 효과로 실적 성장세 지속될 전망. 6공장 착공 및 미국 관련 투자 검토 등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0만원, 최선호주 의견 유지함

생물보안법 연내 확정, 1월 CDMO 기업 포함 여부 확인 예정

국방수권법(NDAA, 생물보안법 포함)은 연내 대통령 서명만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1260H 명단 기업에 대한 정부 계약, 보조금, 대출 제한이 제도화됨. 현재 1260H에 CDMO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방부 고위 인사가 우시앱텍 등 CDMO 포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황. NDAA 승인 이후 1월 예정된 1260H 정기 업데이트는 중국계 CDMO의 실질적 배제 여부를 가늠하는 첫 이벤트. 포함 시 글로벌 수주 물량의 비중국 CDMO 이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미국 관련 투자 시나리오 가정시, 수주 경쟁력 개선 가능

최근 동사의 미국 관련 투자 시나리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동사가 향후 미국 내 생산 거점과 연계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할 경우, 수주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빅파마의 멀티소싱 수요 확대. 주요 경쟁사들은 이미 미국, 유럽, 아시아에 생산 거점을 분산 운영하고 있음. **현재 송도 단일 사이트 체제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강점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현지 영업 측면에서는 상대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음**. 실제로 올해 후지필름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리제네론, J&J와 장기 대규모 계약 체결. 론자 역시 미국 내 로슈/제넨텍 공장 인수하며, 추가 수주 확보. 의약품 관세 및 생물보안법 이슈로 미국 내 생산 단가가 상승하는 환경을 감안하면, 동사의 미국 투자는 이익률 부담보다는 중장기 수주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Industry Report

글로벌 IP 패권 경쟁 속 한국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기회

- 글로벌 IP 비즈니스는 미국, 일본 중심의 과독점 시장
- 한국 콘텐츠 IP 기업들은 해외 진출, OSMU 전략으로 고성장세
- Top pick: 더핑크퐁컴퍼니, 해외매출 확대, 독보적 글로벌 IP 매력

글로벌 기업 중심의 IP 시장 분석과 틈새시장 분석

글로벌 IP 비즈니스는 이미 미국, 일본 중심의 상위 5~10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초과점 구조로 자리 잡음. 디즈니, 유니버설, 소니, 닌텐도 등은 고도화된 IP 라이선싱과 OSMU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 세계 IP라이선싱 시장 4,700억 달러 중 약 2,800억 달러를 상위 기업이 차지. 이러한 환경은 겉으로는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소비층(MZ), OTT, SNS 생태계 확장을 배경으로 신규 IP가 글로벌로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틈새시장이 동시에 열리고 있음

~글로벌 IP 패권 경쟁 속 한국 콘텐츠 기업들의 전략적 기회 모색

그럼에도 현재 한국 콘텐츠 IP 기업들은 불확실성 확대(규제, 경기, 플랫폼 구조 변화)와 단기 실적 변동성으로 주식 시장에서 소외된 상황. ① 해외 매출 기반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고 ② 다중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으며, ③ OSMU 확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장기 성장성이 명확해 지고 있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 해외 매출 가시성 확보 → 플랫폼 및 IP 확장 → 수익성 개선 → 다중 IP 기반 사업 안정화라는 과정이 현실화되며 2026년 기점으로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한국 콘텐츠 IP 기업들 중 글로벌 확장성과 OSMU 역량을 갖춘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이들 기업은 공통적으로 해외 매출이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나 증가 초입 단계에 있으며, 보유한 IP를 기반으로 고마진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을 상회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

Top Pick: 더핑크퐁컴퍼니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이미 80%를 넘어서고,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보한 더핑크퐁컴퍼니를 최선호주로 판단.이어서는 OSMU 전략과 다중 IP 확장을 통해 해외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SAMG엔터, 엔터테크기업 노머스, 웹툰기업 디앤씨미디어, IP 다각화와 신사업 확장을 통해 성장을 모색하는 미투온, KT밀리의서재를 관심종목으로 제시

스몰캡 (IP)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신규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더핑크퐁컴퍼니	N.R	N.R
SAMG엔터	N.R	N.R
노머스	N.R	N.R
디앤씨미디어	N.R	N.R
미투온	N.R	N.R
KT밀리의서재	N.R	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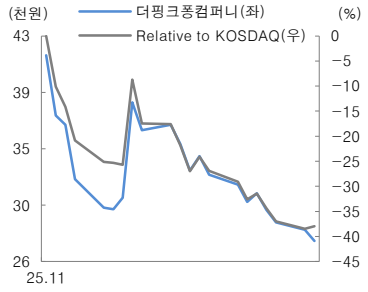
더핑크퐁컴퍼니 (403850)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투자의견	N.R
6개월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25.12.16)	27,550
	스몰캡업종

KOSDAQ	916.11
시가총액	3,954억원
시가총액비중	0.08%
자본금(보통주)	14억원
52주 최고/최저	41,550원 / 27,5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07억원
외국인지분율	0.51%
주요주주	김민석 외 18인 37.45% 케이티 7.8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0	0.0	0.0	0.0
상대수익률	0.0	0.0	0.0	0.0



기업분석

핵심 IP 성숙기 이후, 새로운 성장 사이클 진입

-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핑크퐁을 중심으로 다양한 IP 보유
- 검증된 글로벌 IP와 높은 수익화 구조로 고성장세
- 2026년 예상 당기순이익 기준 PER 15.9배에 거래

글로벌 확장성과 높은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 구조적 성장 기업

더핑크퐁컴퍼니는 2025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글로벌 패밀리엔터테인먼트 기업. 핑크퐁, 아기상어, 베베핀 등 세계적으로 검증된 핵심 IP를 중심으로 콘텐츠·라이선스·MD·게임사업을 영위. 유튜브 누적 구독자 2.8억 명, 조회수 1,900억 회 이상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기반을 갖춤. 25개 언어 현지화 역량을 바탕으로 3Q25 해외 매출 비중은 74%를 기록

검증된 글로벌 IP와 확장성 높은 수익화 구조

①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IP 개발 능력: 핑크퐁·아기상어·베베핀 등 연속적으로 글로벌 흥행 중. 베베핀은 출시 14개월 만에 1,00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신규 IP 흥행 주기가 대폭 단축 ② IP 확장성이 매우 큼. 동사는 자체 제작 인프라를 보유 중이며, 25개 언어를 기반으로 현지화 서비스, 유튜브·넷플릭스·모바일앱 등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를 직접 보유 ③ 높은 비용 효율성과 수익성. AI 기반 번역·더빙·제작 자동화로 제작 비용을 최대 80%까지 절감, 영업이익률은 '23년 5%에서 3Q25 16.5%까지 상승

2026년 매출액 1,183억원(+25.0%), 영업이익 260억원(+37.5%) 전망

3Q25 매출액 230억원(−22.1% YoY), 영업이익 37억원(+659.6% YoY)으로 대표 IP의 성숙과 라이선스,MD 매출 둔화, Smartplay 등 비핵심 사업 정리 영향이 겹치며 전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 2026년 매출액은 1,183억원(+25.0% YoY), 영업이익 260억원(+37.5 YoY) 전망. 신규 IP 출시 주기 단축, 베베핀의 글로벌 확장, 미국, 일본 중심의 라이선스 사업 확대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억원, 원, 배,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878	974	946	1,183	1,479
영업이익	40	188	189	260	399
세전순이익	64	266	149	213	327
총당기순이익	−183	50	149	213	327
지배지분순이익	−163	79	149	213	327
EPS	−1,324	643	1,209	1,728	2,651
PER	NA	0.0	22.8	15.9	10.4
BPS	6,971	7,580	8,793	10,520	13,171
PBR	0.0	0.0	3.1	2.6	2.1
ROE	−17.5	8.8	13.8	16.4	20.1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 자료: 더핑크퐁컴퍼니,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스토홀딩스 (081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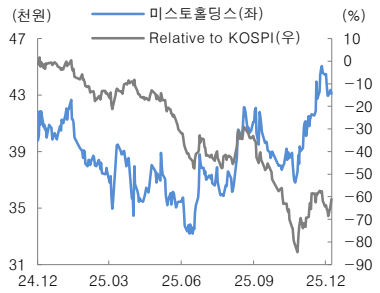
자사주 전량 소각으로 기업가치 제고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0,000 상향
현재주가 (25.12.16)	43,100 섬유의복업종

KOSPI	3999.13
시가총액	2,59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8%
자본금(보통주)	5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5,050원 / 33,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9억원
외국인지분율	36.98%
주요주주	피에몬테 외 3 인 35.94% 국민연금공단 6.7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7.5	3.1	29.2	5.8
상대수익률	7.8	-11.1	-4.8	-34.2



- 보유 자사주 11.7% 전량 소각 발표
- 글로벌 사업을 통해 창출하는 풍부한 현금흐름이 주주가치 제고의 재원
- 주주가치 제고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근거로 작용할 듯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60,000원으로 상향(+13%)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60,000원(2026년 예상 P/E 14배)으로 13% 상향. 목표주가 상향은 보유 중인 자사주 소각에 따라 EPS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데 따름

동사는 전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11.7%(7,003, 999주)를 전량 소각할 계획임을 발표. 동사는 올해 1,8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중간 배당 504억원 등 총 2,300억원의 주주 환원 집행.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관련 정책에 맞춰 선제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동사는 글로벌 브랜드 사업을 통해 창출하는 풍부한 현금 흐름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 이러한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주가 재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4Q25 Preview: 미국법인 구조조정 효과 등으로 손익 개선 효과 지속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625억원(+flat%), 26억원(흑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yoy). 아쿠시넷 사업을 제외한 미스토 부문(FILA 국내, 미국, 로열티, 중국 수수료 및 브랜드 유통 사업) 매출액은 yoy 14% 감소 전망. 이는 미국 법인의 영업 중단에 의한 것으로, 미국 외 FILA 브랜드 사업은 각각 yoy 국내 3% 성장, 중국 수수료 +7%, 로열티 -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영업이익은 26억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 매년 4분기는 아쿠시넷이 재고 평가손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전사 영업이익도 이에 영향을 받는 구조. 이를 제외한 미스토 부문은 영업이익이 지난 해 4분기 -287억원에서 올해 4분기 +170억원으로 yoy +457억원 개선되며 흑자 전환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4Q24	3Q25	4Q25(F)					1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861	1,088	852	863	0.1	-20.7	867	1,230	-0.6	42.6
영업이익	-36	132	3	3	흑전	-98.0	12	194	19.0	7,252.7
순이익	-57	63	21	-12	적지	적전	10	88	7.1	흑전

자료: 미스토홀딩스,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4,007	4,269	4,416	4,430	4,501
영업이익	303	361	479	518	536
세전순이익	277	339	477	507	530
총당기순이익	153	208	292	310	324
지배지분순이익	43	84	219	233	243
EPS	701	1,398	4,117	4,372	4,566
PER	55.2	28.8	10.6	10.0	9.6
BPS	31,409	33,280	45,270	57,004	75,530
PBR	1.2	1.2	1.0	0.8	0.6
ROE	2.3	4.3	9.9	8.5	6.9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미스토홀딩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삼성전자 (005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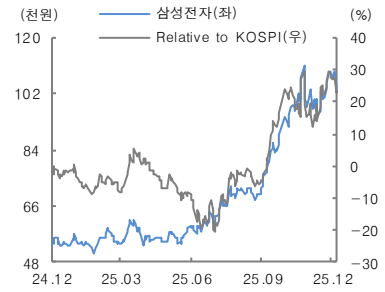
푸른 피의 힘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40,000 유지
현재주가 (25.12.16)	102,800
	반도체업종

KOSPI	3999.13
시가총액	673,65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20.25%
자본금(보통주)	77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11,100원 / 51,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7,096억원
외국인지분율	52.07%
주요주주	삼성생명보험 외 15 인 19.84% 국민연금공단 7.7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8	29.5	79.7	84.9
상대수익률	6.1	11.7	32.4	15.1



- 이익 체력 강화.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10조원으로 상향.
- Valuation의 Upside 여력 존재. 구조적 변화 노력에 주목.
- 목표주가 140,000원과 매수의견 유지

이익 체력은 강화되고 있고

4Q25와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19.3조원, 110조원으로 상향.

1) 관록의 힘: 공격적인 가격 인상 정책을 시행했고, 성과는 기대 이상. 4Q25 범용 DRAM ASP는 전분기 대비 40% 상승할 것. 공급업계의 재고 부족과 제한적 생산 증가 효과가 중첩될 1Q26에도 파괴적 가격 인상이 예상.

2) HBM 경쟁력 상승: 2026년 HBM 출하량은 전년대비 140% 성장한 112억 Gb에 이를 것 (HBM3e: 50억 후반 Gb, HBM4: 50억 초중반 Gb). 그간의 전망치에 불확실성이 다량 결부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목표 달성의 신뢰성이 상당 수준 상승 (ASIC향 물량 상승). HBM4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 3개 거래선 중 2개 거래선향으로는 근시일내 제품 인증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

3) 2026년 Capex는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상향: 단기 생산에 중요한 장비 투자는 과거 대비 절제된 수준. 중장기 수요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P4L, P5L) 중심으로 Capex는 상향될 것. 당사 예상 2026년 메모리반도체 Capex는 40조원 (Capital Intensity: 18%). 여전히 건전한 수준이라는 판단.

4)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간다: Captive 고객 물량 회복 (엑시노스 2600: 2026년 1,300-1,500만 개 출하 전망) 및 외부 수주 활성화 (북미 고객사들 중심) 효과가 중첩. 이에, 2026년에는 분기 흑자 전환을 볼 수 있을 것.

Valuation의 Upside는 열려 있다

AI 시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선 투자가 필요. 주가의 De-Rating을 해소하기 위해선 주주환원도 강화될 필요. 상충되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돈 버는 메모리반도체로의 구조 변화가 필요. 당사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그렇다면, 지금은 좋은 비중 확대의 기회.

- FCF의 예측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Capex Discipline을 강화할 것

- 가격을 그간 충분히 올린 만큼 2027-2028년까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는 판단. 사이클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258,935	300,871	332,035	427,909	435,435
영업이익	6,567	32,726	42,844	110,781	70,450
세전순이익	11,006	37,530	48,895	115,687	76,997
총당기순이익	15,487	34,451	40,897	85,608	56,208
지배지분순이익	14,473	33,621	40,021	84,702	55,337
EPS	2,131	4,950	5,935	12,575	8,216
PER	36.8	10.7	11.9	5.6	8.6
BPS	52,002	57,663	62,694	74,049	77,954
PBR	1.5	0.9	1.6	1.4	1.3
ROE	4.1	9.0	9.8	18.4	10.8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삼성전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